

광주 경총·상의 “미래차 산단 지정 환영”

경총 “배후단지 활성화 적극 협력”
상의 “정부 전략·과격 지원 희망”

광주경영자총협회와 광주상공회의소는 15일 광주가 미래 자동차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것을 환영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광주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빛그린산단 배후 100만평 국가산업단지 선정으로 광주는 부지와 예산 확보를 통해 자동차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탄력을 받게 됐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집적화로 미래 먹거리 확보에 정신평가 켜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광주경총은 “국가산단 지정에 노력해준 강기정 시장과 정부 결정에 감사드리며, 빛그린산단 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 미래차 국가산단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상의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가산단 지정은 지역 제조업의 43%를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 생태계는 물론 인접한 AI 집적단지 등과 연계를

통해 글로벌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기지로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휴대전화처럼 변화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기업 생존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산업 인프라와 전후방 연관 산업의 집적 효과 등을 고려한 전략·과격적인 정부 차

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상의는 끝으로 “지역민 모두가 바라는 미래 모빌리티 신경제 구현이 선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국 15곳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에 지정된 국가산단은 ▲산업단지 용적률 최대 1.4대 상향 ▲산업단지 조성 기간 단축 ▲각종 규제 해소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으로 광주지역 자동차산업이 또 한번 크게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연수·오지현 기자



하나뿐인 슈트 입어보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7층 폴로랄프로렌 멘즈 매장에서 오는 25일 ‘나만의 맞춤 슈트 서비스’를 사전 예약으로 진행한다. 2023년 S/S 클래식 슈트부터 캐주얼한 스타일까지 원단과 스타일 모두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숙련된 장인의 정교한 테일러링으로 세상이 단 하나뿐인 나만의 맞춤 슈트를 구매할 수 있다. 예약은 23일까지 해당 매장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 가능하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광주·무안·순천 자원순환제도 권역별 설명회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본부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는 광주·무안·순천에서 ‘2023년 자원순환제도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설명회는 16일 광주 테크노파크 생활자원로봇센터 대강당, 21일 무안 전남도립도서관 다목적강당, 23일 순천 호남호국기념관에서 마련된다.
이번 설명회는 폐기물부담금,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환경성보장제,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자원순환제도에 대한 안내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제도 전환되는 품목(폐기물부담금→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환경성보장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인 아이스팩, 플라스틱 제품 등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오는 31일까지 2022년도 출고·수입실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포장재 및 제품과

환경성보장제 전기·전자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기업은 4월 15일까지 2022년도 출고·수입·판매실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장은 전년도에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실적을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자원순환제도 설명회 참석 방법과 실적신고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제도운영부(062-949-0305, 0315)로 문의하면 된다. /이연수 기자

1월 취업자 증가에도 제조업·생산 감소

한은, 광주·전남 실물경제 동향
지난 1월 광주·전남의 소매판매 및 취업자 수는 증가했으나 제조업 생산 및 건축업계의 전망은 흐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의 경우 광주는 증가 전환됐으나, 전남은 부진을 면치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최근 광주전남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1월 중 광주 제조업계는 전기장비, 자동차·트레일러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6% 하락했다. 전남은 화학제품, 1차 금속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0.5% 폭락했다.
취업자는 일부 감소했으나 전체적으로는 증가했다. 광주의 경우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

비 2만3,000명 증가하며 실업을 또한 전년동월 대비 1.6%p 하락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5,000명 감소했으나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은 1만 1,000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에서는 9,000명 증가했다.
전남의 경우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만 6,000명 증가했으나, 실업률은 4.2%p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2,000명 감소했으나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은 1만명, 농림어업에서는 7,000명 증가했다.
1월 소비는 설 명절 특수로 인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6% 감소했다. 기타기계·장비 생산은 24.9%로 증가했으나 전기장비가 -29.2%, 자동차·트레일러는 -6.3% 등으로 감소하면서 -3.9%를 기록한 전월

에 이어 또 다시 감소세를 기록했다.
전남 제조업 생산은 화학제품이 -14.4%, 1차 금속 -6.8% 등이 줄면서 -11%를 기록했던 전월에 이어 감소했고, 제조업 출하 또한 전년동월대비 7% 감소했다.
고금리로 인해 건설업체의 자금조달도 어려워지면서 건축지표 또한 크게 약화됐다.
광주의 건축작공면적은 전년대비 78.4% 급감했으며, 전남의 건축작공면적 또한 55.8% 감소했다. 그러나 미분양 아파트는 광주는 262호로 291호였던 전월대비 감소, 전남 또한 2,884호로 3,029호였던 전월대비 그 수는 줄었다.
1월 중 광주의 수출은 26.6%를 차지한 기계류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2.0% 증가했다. 전남의 경우 석유제품은 36.2%로 증가했으나 철강금속이 -66.2%, 화학공업제품 등이 -22.0%로 하락하면서 전년동월대비 12.5% 급감했다. /오지현 기자

LH 광주전남, 여수시에 ‘희망상가’ 16호 공급

임대 시세 대비 50~80% 저렴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LH)는 여수시에 여수서교 희망상가 16호를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희망상가’는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주변시세 이하(50~80%)로 청년·경력단절여성·소상공인 등에게 장기간 임대하는 상가다.

이번에 공급되는 희망상가 16호는 여수시 서교동 153-4번지 여수서교 행복주택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공급유형은 3가지로 청년·경단녀·사회적기업에 공급하는 공공지원 I형 8호는 시세의 50%, 소상공인 대상 공공지원 II형 3호는 시세의 80%, 실수요자 대상 일반형은 5호를 공급 예정이다.
공공지원형의 경우 지원자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창업아이템의 적합성, 지속가능

성 등을 심사해 적격자를 선정한다. 일반형은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입찰을 통해 공급한다.
해당 상가 근방 0.3km 이내 총 8개소의 버스정류장이 위치해 대중교통 편의성이 우수하고, 근처 서시장이 위치해 상권이 발달돼 있다.
또한 여수서교 행복주택(200호) 입주, 민간 임대아파트(238세대)가 준공예정임에 따라 안정적인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형은 오는 29일 LH청약센터 전자입찰로 이뤄지며, 공공지원형은 4월 4일부터 7일까지 현장제출과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접수 받는다. /이연수 기자

광주 2월 36시간 이상 근로자 전년비 2만5천명 ↑

전남은 2,000명 감소

2월 광주지역 취업자 증가와 함께 36시간 이상 전일제 근로자가 증가하며 ‘고용의 질’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5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2월 광주·전남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광주지역 취업자는 75만9,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만9,000명 증가했다.
이중 36시간이상 취업자는 전체의 79.1%인 60만1,000명으로 전년(57만6,000명)비 2만 5,000명 많아졌고 전월(59만명)보다도 1만 1,000명 늘었다.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전년동월과 같은 15만 1,000명으로 나타났지만 구성비는 20.4%에서 19.9%로 줄었다. 주당 평균취업시간도 전년비 0.1시간 증가한 39.8시간으로 집계됐다.
36시간은 단시간 근로자와 전일제 근로자를 나누는 일반적인 기준이다. 단시간 근로자는 전일제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임금이나 근무환경 등이 열악하다.
산업별로 광공업(-2,000명·-2.2%)에서는 감소했으나 그외 전기·운수·통신·금융업

(9,000명·10.2%), 농림어업(5,000명·34.6%), 도소매·숙박·식점업(4,000명·2.5%) 등에서는 모두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1만 7,000명(4.1%)·3,000명(11.8%) 증가했으나 임시근로자는 3,000명(-2.5%) 감소했다.
같은기간 전남 취업자는 100만 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8,000명 증가했다.
다만,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68만1,000명으로 전년비 2,000명 감소했고 36시간미만 취업자는 30만 4,000명으로 무려 8.1%(2만3,000명) 많아졌다.
산업별로 도소매·숙박·음식점업(1만4,000명·8.4%), 광공업(7,000명·7.1%), 건설업(6,000명·8.2%)에서 취업자 증가세를 이끌었으나 농림어업(-8,000명·-3.7%), 전기·운수·통신·금융업(-6,000명·-7.6%)에서는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6,000명(1.5%), 일용근로자 5,000명(17.2%) 임시근로자는 4,000명(2.4%)씩 증가했다. /홍승현 기자



광주시 북구에 소재한 ㈜오톨은 최근 사우디서 열린 ‘BIBAN 2023 Draper Aladdin 스타트업 경쟁부문’에 참여해 2등을 수상했다.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제공

(주)오톨, 사우디 스타트업 페스티벌서 2등 저방사선 방출 휴대용 엑스레이 기술 인정

광주지역의 한 기업이 중동 최대 스타트업 행사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BIBAN 2023 Draper Aladdin 스타트업 경쟁부문’에 참여한 전체 500개 기업 중 국내 스타트업 ㈜엔젤스윙과 ㈜오톨이 각각 1·2등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2등을 차지한 ㈜오톨은 광주시 북구에 소재한 지역기업이다. 무선출력이 가능해 비대면 진료에 최적화된 저방사선 방출 휴대용 엑스레이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BIBAN’은 사우디에서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한 중동지역 최대 스타트업 페스티벌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사우디 상무부의 초청으로 이영 장관이 국내 장관 최초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우리 기업이 수상한 ‘Draper Aladdin 스타트업 경쟁부문’은 사우디 알라딘 그룹과 미국 벤처캐피털 Draper그룹이 중동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주최한 행사다.
전 세계 500개 스타트업이 참가했으며 이중 60개팀만 예선에 진출했다. 주최 측은 본선에

오른 13개팀 중 2개 한국기업을 포함해 3개 기업을 탑3로 선정했다.
한국은 이 부문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참여했는데 15: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10개의 K-스타트업 대표 기업이 1등과 2등을 하는 쾌거를 이뤘다.
㈜엔젤스윙과 ㈜오톨은 이번 수상을 통해 Draper그룹으로부터 투자유치가 전망된다.
이영 장관은 “BIBAN 2023에서 우리 스타트업의 수상은 전 세계가 K-스타트업의 혁신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중기부는 더 많은 우리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국가 정부와 전략적으로 협의해 가는데 정책적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영 장관과 칼리드 알 팔레 투자부장관 양자회담 후 행사에 참여한 10개 우리기업과 사우디 투자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우리 기업들은 투자유치, 현지 파트너 물색, 중동 진출에 필요한 정보 등을 투자부로부터 제공받는 등 사우디 진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홍승현 기자